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1
2016년 12월 10일

사회진보연대 발행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 02-778-4001~2 | www.pssp.org | pssp4001@gmail.com ‖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광주시 북구 신안동 135-7 SJ빌딩 2층 민중행동 | www.pssp.org/gj | pymjhd@gmail.com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80-27 2층 | www.pssp.org/ic | icpssp@jinbo.net ‖ 후원계좌 | 하나은행 711- 910262-85707 (정영섭)

주권자의 내 나라를 건설하자!

주권자의 명령으로 여기까지 왔다

고장 난 민주주의의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탄핵 가결 표를 던진 234명의 국회의원은 촛불의 뜻을 대변했을 뿐이다. 촛불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탄핵열차에 올라탄 자들 중에는 박근혜 죽이기를 이용해 보수대재편을 기획하는 자들이 끼어들어 왔음을.

탄핵을 외치고 친박을 버리며 새누리당의 비박이 되살아났다. 박근혜 체제의 문제를 최순실과 박근혜 개인의 문제라 외치며 정치검찰과 보수언론이 되살아났다. 우리의 민주를 짓밟던 자들이 마치 우리 친구인 양, 민주의 수호자인 양 우리 속에 끼어든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밖에 없다.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은 이제 탄핵 뒤편에서 박근혜 체제를 되살리려는 공범들을 향해야 한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경계하자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지고 즉각 구속되어 처벌을 받는 순간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과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촛불의 다음 요구는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박근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황교안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의 기조를 이어받아 '박근혜 아바타'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책이 무엇인가? 기업 규제가 손톱 밑 가시라며 없애고, 철도·의료를 민영화 하고, 쉬운 해고와 파견 노동을 확대하고, 독재자와 재벌의 편에서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검은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 그렇게 만들어진 무책임 사회의 비극이 세월호 참사였고, 구의역 청년노동자의 죽음이었다. 이 모든 적폐를 깨끗이 청산해야만 우리는 "이게 나라냐"는 뜨거운 울음을 멈출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체제에 부역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특히 촛불은 지금까지 "박근혜 퇴진" 만큼이나 "재벌도 공범"을 외쳤다. 청문회에서도 밝혀졌듯 재벌은 공범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이었다.

대선 후보에 따라 분열될 수 없다

과거에 우리는 더러운 정치판에 혀를 끌끌 차던 냉소적인 구경꾼이었다. 잠시 분노했다가도 돌아서면 다 잊은 채 입만 뻐금거리는 금붕어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달라졌다. 다가올 정치세력 재편과 대선의 주인공은 촛불을 통해 정치적으로 각성한 시민들이다.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촛불이 혼돈이라고, 또 누군가는 이제 정권교체를 위해 당선이 유력한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촛불을 끝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도, 박근혜 체제에 도전을 한 것도 바로 촛불이다. 이것이 혼돈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극소수 기득권이 아닌 주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혼돈'이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1표로 환원되지 않는다.

또 다른 박근혜·최순실을 몰아내자!

광장의 주권자 명령을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곳으로 확장하자.

우리 중 일부는 통장을 스쳐가는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오늘도 일터에서 욕설을 견디다 광장의 주권자로 섰다. 박근혜를 탄핵했던 주권자의 명령으로 이제 일터에서 노동권을 요구하자.

또 우리 중 일부는 내일의 희망을 위해 공부하지만 흙수저가 금수저를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하다 광장의 주권자로 이 자리에 섰다. 이제 주권자의 명령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한 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를 요구하자.

박근혜 퇴진은 우리를 입 닫고 굴종하게 만드는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이 자리에 모인 개인 모두가 거리와 일터, 그 어느 곳에서나 주권자로서 자존을 되찾는 위대한 불꽃이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시즌 2는 박근혜 체제를 해체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삶과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위대한 싸움이 될 것이다. ●

pssp1210.indd 1 2016-12-10 9:57:29

청년에게 이재용은 미래의 박근혜다

이재용 입에서 나온 박근혜의 말들

"모른다", "앞으로 잘하겠다", "특검에서 밝히겠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한 말들이다. 너무나 익숙하다. "최순실씨가 했고 난 모른다", "국정 중단 안 된다", "특검에서 밝히겠다." 박근혜의 세 차례 담화와 묘하게 겹친다. 이재용의 말들은 박근혜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청문회가 밝혀낸 것

답답한 청문회였지만 추가로 밝혀진 사실도 있었다. 첫째, 삼성이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는 사실이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한화그룹 비서실에 압력을 넣어 합병에 부정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합병이 사업 시너지를 위한 두 계열사의 자체적 판단이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증언은 명확한 위증이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삼성전자 돈으로 최순실 모녀를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고, 또한 이 일에 직접 연루된 장충기 사장과 자주 만난다는 것도 인정했다. 물론 자신은 몰랐다며 발뺌하긴 했다. 하지만 장충기 사장이 이재용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정권 실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꼬리자르기

이재용이 13시간의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답한 것은 전경련 탈퇴와 미래전략실 해체가 유일하다. 그러나 삼성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컨트롤타워의 이름을 바꿨다. 하나마나한 약속이다. 전경련 역시 재벌들 입장에서는 계륵에 불과해서 해체해도 무방하다. 미래전략실 해체와 전경련 탈퇴는 원래 삼성이 하려던 일에 힘을 실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임기도 탄핵도 없는 경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기도 없고 탄핵할 수도 없는 경제 분야의 박근혜, 이재용은 남을 것이다. 최대 피해자는 경제대통령 이재용이 30여 년을 지배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다.

이재용을 처벌하지 않으면 악몽은 재현된다. 박근혜가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면, 이재용은 다가오는 미래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200만 촛불은 이제 삼성을 향할 필요가 있다. ●

철도 파업 해결 없인 도로 박근혜, 도로 최순실

"우리 안의 박근혜, 내 옆의 최순실"에 맞서 투쟁 중인 철도노동자에게 힘을!

200만 촛불의 시작

오늘의 200만 횃불은 3만 촛불로 시작됐다. 누구 말처럼 바람 불면 꺼질 수도 있는 작은 촛불이었다. 그때 촛불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박근혜의 '쉬운 해고' 정책을 막기 위해 파업 중이던 철도노동자들이다.

박근혜는 철도노조 탄압을 자신의 권좌를 지킬 명분으로 삼았다. 퇴진 담화를 할 때도 간접적으로 이를 언급했다. 철도노조 투쟁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최전선이다.

철도공사 안의 박근혜와 최순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철도의 박근혜"다. 저항하면 "귀족노조"라 매도하고, 사고가 생겨도 제 잘못은 없다고 버티며 파업 탓만 한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세월호 사고까지 '종북좌파' 타령으로 은폐하려 했던 박근혜의 망령을 우리는 홍순만 사장에게서 본다.

2013년에도 코레일은 KTX민영화를 밀어붙였다. 당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노조를 탄압한 "공로"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친박 후보로 금뱃지를 달았다. 현재 홍순만 사장 역시 친박 낙하산 인사로 철도공사에 입성했다. 청와대의 비호 아래 실세로 군림하며, 온갖 반사회적 정책을 추진한 이들은 "코레일의 최순실"들이다. 74일간 파업을 해도 그들이 한 말은 "그만 가만히들 있으라" 한 마디 뿐이었다.

탄핵의 딜레마를 풀려면 철도노조 투쟁이 승리해야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한 탄핵이지만, 탄핵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의 시작이기도 하다. 박근혜가 직무정지 되어도 "박근혜 정책"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촛불 시민이 외친 "박근혜 정책 폐기"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탄핵 이후에도 촛불을 꺼서는 안 된다. 홍순만 사장이 배짱좋게 국회의 노사합의 권고도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박근혜, 황교안이 뒤를 봐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박근혜를 퇴진시키려는 이유를 잊어선 안 된다. 지금도 도처에 널린 박근혜, 최순실들에게 짓밟히는 사람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황교안 총리, 이기권 노동부 장관,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을 몰아내는 건 "우리 안의 박근혜, 내 옆의 최순실"을 몰아내는 우리 일상 속의 촛불이다. 현재 철도노조는 현장으로 복귀해 2차 투쟁을 위한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철도공사는 대규모 징계로 노조를 탄압 중이다. 철도노조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연대하자. ●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특별페이지

www.pssp.org

박근혜 체제를 바꾸기 위한 특별 페이지입니다.
비선의 비선, 삼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헤치는 글이 올라옵니다.
보수 언론의 주요 기사와 사설에 관한 논평을 매일 발행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검색